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9. No. 5, pp. 443-448, 2021

ISSN 2713-6434 / eISSN 2713-6442
https://doi.org/10.14400/JDC.2021.19.5.443

미용 계열 학과명 변천에 따른 연도별 용어 분석 - 전문대학과 4년제 종합대학교를 중심으로

박장순
송원대학교 뷰티예술학과 부교수

Analysis of terminology by year according to the change of beauty department department names - Focused on vocational colleges and university

Jang-Soon Park
Associate Professor, Dept. of Beauty Art, Song-Won University

요 약 학과명은 단순히 학과의 존재만 알리는 수단뿐만 아니라 해당 학과의 전반적인 교육과정, 특성화 전략, 학생 관리, 취업 등을 내포하는 중요한 지표로 작용한다. 대내외적 홍보의 집합체인 학과명의 중요성은 크게 대두되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기존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국 2년제 전문대학과 4년제 종합대학교 미용 계열 학과명에 사용된 용어를 연도별로 조사함으로써 학과가 지향해야 할 발전적 목표 설정과 교육과정 개편을 위한 체계적 분석에 일조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1994년은 피부미용과가 7개교(41.18%)로 가장 많았고 2005년, 2013년, 2020년에는 모두 'Beauty'가 각각 50건(21.55%), 67건(28.03%), 92건(34.20%)을 차지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미용산업의 전반적 트랜드 분석이 가능해지며, 학과명 변경을 추진하거나 향후 학과개설 시 기초자료로 활용되리라 사료한다.

주제어 : 미용 계열, 학과명, 용어, 동향, 학과 특성화

Abstract The name of the department is not only a means of notifying the existence of the department, but also acts as an important indicator that includes the overall curriculum, specialization strategy, student management, and employment of the department. The importance of the department name, which is a collection of internal and external public relations, has emerged greatly, but the existing research related to this is insufficient. Therefore, in this study, the terminology used in the names of beauty departments at two-year colleges and four-year colleges nationwide is surveyed year by year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developmental goals that the department should aim for and a systematic analysis for curriculum reform. As a result of the study, in 1994, 7 schools (41.18%) had the most skin care departments, and in 2005, 2013 and 2020, 'Beauty' was 50 cases (21.55%), 67 cases (28.03%), and 92 cases (34.20%), respectively. Through this study, it is possible to analyze the overall trend of the beauty industry, and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used as basic data when promoting a department name change or opening a department in the future.

Key Words : Beauty department, Department name, Terminology, Trend, Department specialization

*Corresponding Author : Jang-Soon Park(anima2929@hanmail.net)
Received February 9, 2021 Revised February 25, 2021
Accepted May 20, 2021 Published May 28, 2021

1. 서론

전광석화(電光石火)처럼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현대사회는 사회규범, 가치관, 이미지 선호도 등이 시시각각으로 변화한다[1].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소비 행동과 외모 관리에 대한 인식 변화는 대중적 사회 가치와 사회 구성원에 대한 인식에도 쉽게 영향을 받게 된다[2]. 현대인 대부분은 사회생활의 모든 관계에서 시각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타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본인을 아름답게 연출하기를 갈망하는데 이러한 개성 표현은 상호 간의 소통 수단으로도 작용한다[3].

따라서 현대인의 외모 관리는 개인의 가치관이나 사고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커다란 변수(變數)로 작용하면서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영향을 주게 된다[4]. 동시에 자신의 신념이나 자아를 더욱 견고히 하고 개성을 강조하면서 외모에 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심리적 위축감을 감소시킴으로써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자신감을 증가하게 만든다[5]. 그러므로 현대사회에서의 외모는 경쟁자와 우열을 정할 시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는 요인이다[6].

현 시대적 추세로 인해 현대인은 외모 관리와 치장을 위해 많은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투자하고 있으며[7] 개성을 최대한 창출하면서 외모 관리를 위한 헤어, 네일, 피부, 메이크업 등 미용산업은 패션산업과 함께 시장 규모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8]. 패션산업과 마찬가지로 미용산업도 점점 세분화, 전문화의 절차를 밟으면서 개인의 역량 강화와 함께 현대사회에서 사회생활을 위해 반드시 겸비해야 할 필수요소로 정착되고 있다[9].

현대인의 모발, 얼굴, 인체를 아름답게 연출하는 미용시술을 통해 타인에게 호감을 주는 긍정적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지만[10], 미용산업은 여타 산업과 달리 기계조작이나 컴퓨터 공정에 의한 자동화가 불가하다. 즉 인간의 손에만 오로지 의지하기 때문에 고용 극대화가 매우 높고 취업도 매우 유리한 직종이다[11].

미용산업이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떠오름에 따라 내외적인 발전과 함께 인재 개발의 중대성도 부각하고 있다. 양적으로 미용 교육의 팽창기인 현재 전국의 대학에서는 질적 성장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인터넷이나 방송매체 등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홍보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기 위하여 학과의 존재를 알리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학과명은 해당 학과의 존재만 알리는 수단이 아닌 학과의 전반적인 교육과정, 학생 관리 및 취업, 학과만의 특성화 전략 등을 내포하는 중요 지표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94년, 2005년, 2013년, 2020년의 연도별로 전국 전문대학과 4년제 종합대학교 미용계열 학과명의 현황과 사용된 용어들을 조사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2.1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연구 대상인 전국 전문대학 및 4년제 종합대학교에 개설된 미용 계열 학과들의 학과명에 관한 자료수집은 인터넷 사이트 나무위키(Namuwiki)[12], 전국 대학교육협의회[13], 전국 대학 협의회[14],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15], 대학 알리미[16], 각 대학 학과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1992년 개설 초기에는 전국 개설된 미용 계열의 대학 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미용 계열 학과명 변천의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1994년부터 조사 시기를 설정하여 2005년, 2013년, 2020년으로 연도별 4그룹으로 분류하였다. 많은 전문대학의 전공심화과정 운영에 따른 4년제 종합대학교와의 구분이 모호하여 양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조사하였으며 학점은행제, 사이버 및 디지털 대학교는 연구조사에서 제외하였다.

학과명에 사용된 키워드를 모두 자료대상으로 선정하였고, 검색된 Raw-Data에서 노이즈와 중복 데이터를 제거하여 유효데이터만을 선별과정을 거친 후 수집하였다.

2.2 분석 방법 및 자료처리

전국 2년제 전문대학과 4년제 종합대학교에 개설된 미용 계열 학과명 총 376건의 유효데이터가 조사되었다.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1994년, 2005년, 2013년, 2020년의 연도별 분포 현황에 따른 세분화에 의해 미용 계열 학과명에 사용된 용어 동향 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한글 용어를 영문으로 번역 시 중복되는 관계로 이에 해당하는 한글 용어는 부득이하게 한자로 기재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연도별 학과명에 사용된 용어

3.1.1 1994년

1981년 서울 YWCA에서 피부미용사 교육과정을 개설한 이후 국내에서 미용학원과 피부미용학원의 개설이 붐을 이루었다. 1991년 강릉 영동전문대학의 미용과와 부산 동주여자전문대학의 피부미용과가 최초로 개설된 이후, 많은 대학에서 미용과 신설이 붐을 이뤘다[17].

인천, 전북, 제주를 제외한 지역에서 미용과가 개설되었는데 학과명으로 피부미용과가 7개교(41.1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피부관리과 6개교(35.29%), 미용과 4개교(23.53%) 순이었다.대학의 미용 계열 학과명에 사용된 용어로는 Fig. 1과 같은데 '피부'가 13건(43.33%)으로 가장 많았고, '미용'과 '관리'는 각각 11건(36.67%)과 6건(20.0%)을 차지하였다. 이는 학과 개설자가 기초과학이나 피부미용 전공자 비율이 높았고, 개설 당시에는 교육과정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지 않아 피부미용사(esthetician), 미용사(cosmetologist), 미조사(manicurist)를 양성하는 미국과 독일의 미용전문학교 교육체계를 참고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그리고 1980년 이후 국제 교류의 활성화와 국민소득의 증가에 따른 경제적 여유가 피부미용의 관심을 증폭했다는 권도희의 선행연구[18]와도 맥을 같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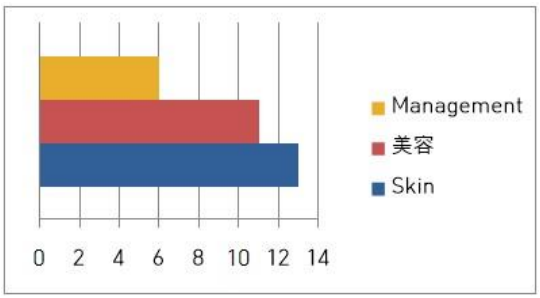

Fig. 1. Terms used in the name of college beauty department in 1994.

3.1.2 2005년

2년제 전문대학에 개설된 미용 계열의 학과는 미용 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 인력을 교육하여 즉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미용인을 양성하면서 4년제 대학교와 차별성을 강조한다[19]. 반면 1990년 후반부터 대학 미용 교육의 최대관심사였던 4년제 종합대학교의 학과개설이 드디어 1999년 광주여자대학교에서 신설되었다. 이를 기폭제로 삼아 4년제 종합대학교에서 학과 신설이 붐을 일으키면서 미용의 중흥기를 맞게 되었다[20]. 미용교육의 뜨거운 열풍은 더 나아가 석, 박사과정의 대학원 신설로 이어지면서 학문적인 체계를 견고히 구축하게 되었다.

전국 2년제 전문대학 및 4년제 종합대학교에 2005년 현재 개설된 미용 계열 학과 110개 조사 결과는 아래 Fig.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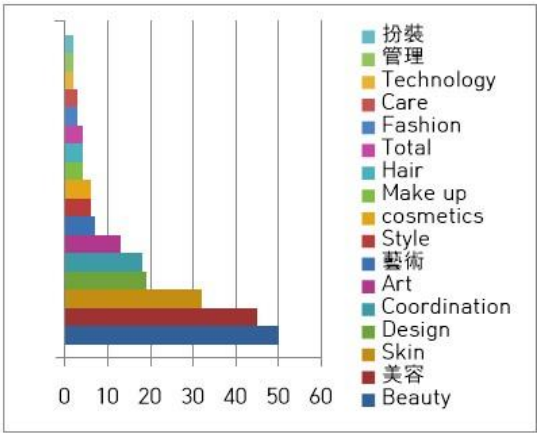

Fig. 2. Terms used in the name of college beauty department in 2005.

학과명 용어로 총 31개가 조사되었으며, 학과명에 가장 많이 사용된 용어는 'Beauty'가 50건(21.55%)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음은 '美容' 45건(19.39%)과 'Skin' 32건(13.79%) 순이었고 'Design' 19건(8.19%), 'Coordination' 18건(7.76%), 'Art' 13건(5.60%)이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Science, Therapy, Colorist, Health, Tourism, Wedding, Obesity, Founded, Wellbeing, Medical, Oriental medicine, 醫療, 保健, 香粧 등 1건씩이었다. 미용 계열 학과가 개설된 대학이 4년제 대학교보다 전문대학이 수적으로 월등히 많아 산업체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재 양성의 실무교육에 더욱 근접한 'Beauty'라는 용어를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반면 'Skin'을 사용하는 빈도는 32건으로 비교적 높았던 반면 'Hair'와 'Make up'을 학과명에 사용 빈도는 단 4건(1.72%)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1990년대 전문대학 미용 계열에서 학과명으로 많이 사용한 '피부미용'의 강세 여파가 아직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라 판단한다.

3.1.3 2013년

2000년대 초, 중반 꾸준히 증가하던 미용 계열 학과의 신설은 2010년 4개교 증가를 정점을 보인다. 이는 미용산업의 꾸준한 증가를 의미하기보다 전공 세분화에 따른 학과의 개설 또는 기존 학과를 계열이나 학부로의 전

환하여 학과명을 새롭게 신설했기 때문이다.

2013년 전국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교 98개교에서 119개의 미용 계열의 학과가 개설되었고, 학과명에는 총 30종의 용어가 사용되었는데 조사 결과는 Fig. 3과 같다.

미용 계열 학과명에 가장 많이 사용된 용어는 'Beauty'가 67건(28.0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은 '美容'이 49건(20.50%)이었고 'Skin'과 'Design'이 각각 21건(8.79%)과 18건(7.53%)으로 뒤를 이었다. 2008년 미용사 피부의 분리와 2013년 미용사 네일의 분리로 인해 전공 분리의 추세는 더욱 가속화 하였다. 하지만 학과명에 세분된 용어 사용에는 정착이 안 되어 시기 상조였으므로 일부 학과에서만 시범적으로 적용하였다. 따라서 대개의 대학에서는 헤어, 피부, 네일, 메이크업을 모두 포함하는 'Beauty'나 '美容'을 이전 시기처럼 많이 사용하였던 것으로 판단한다.

이 밖에도 Manager, Yag-son, Hair, Make up, 扮裝, Operation, Wellbeing, Therapy, Wellness, Total, Herb, 醫療, 保健, chemical engineering 등이 1건씩 나타났다. 2005년과 비교 시 'Skin' 사용 빈도는 소폭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강세를 지속한 반면 'Hair'와 'Make up' 사용 빈도는 현격히 감소하였다. 미용산업체와 교외 협력 관계를 맺으면서 대학 학과명에 특정 산업체 삽입 경우도 'Yag-son'에서 나타났다. 그리고 학과명이나 특성화는 역임 중인 학과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화학공학 전공자 학과장 경우 미용과 화공을 조화롭게 융화시켜 학과를 운영하는 사례가 'chemical engineering'에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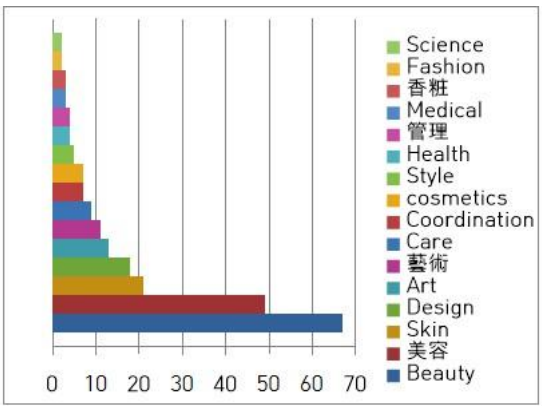

Fig. 3. Terms used in the name of college beauty department in 2013.

3.1.4 2020년

2020년에는 일부 대학에서 헤어, 피부 또는 헤어, 피부, 메이크업 별로 전공을 분리하고 정원을 축소하면서 학과를 새롭게 개편하려는 예가 많았다. 주로 수도권이나 지방 대도시 소재 대학에서 많이 운영하는데, 이는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인구절벽에서도 학생모집에 비교적 여유가 있기 때문이라 판단한다.

2020년 기준으로 미용 계열 학과가 개설된 전국 전문대학과 4년제 종합대학교 111개교, 130개 학과명 조사 결과는 Fig. 4와 같다.

2013년 조사보다 더욱 세분된 용어들이 학과명에 사용되어 총 38종이 확인되었다. 2020년 학과명의 가장 큰 특징은 한두 개의 용어가 아닌 한글과 영문으로 구성된 다수의 용어를 융합하여 사용하는 학과가 많았으며, 최대 4개의 용어까지 사용하는 예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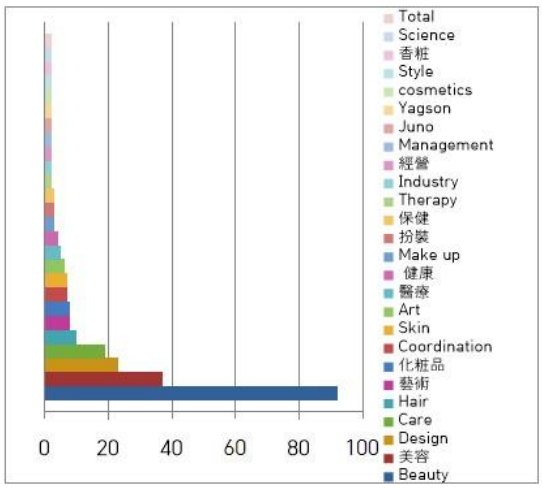

Fig. 4. Terms used in the name of college beauty department in 2020.

미용 계열 학과명에 가장 많이 사용된 용어로는 'Beauty'가 월등히 많은 92건(34.20%)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美容', 'Design', 'Care'가 각각 37건(13.75%), 23건(8.55%), 19건(7.06%)으로 나타났다. 세분 전공과 별개로 모든 미용 전공을 아우르는 용어인 'Beauty'와 '美容'은 2020년에도 여전히 학과명에 많이 이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Skin'은 1994년 13건(43.33%), 2005년 32건(13.79%), 2013년 21건(8.79%), 현 2020년에는 7건(2.60%)으로 급격한 감소세를 나타냈다. 이 밖에도 Fusion, Science, Health, Illust, Colorist, Fashion, Global, Wellness, Nail,

K, Broadcast, 管理 등의 용어도 1건씩 나타났다.

일부 대학에서는 준오헤어, 약손명가 등의 산업체와의 MOU 체결을 통한 산학협동체계를 구축하여 학과 운영 사례도 있었다. 그리고 'K-pop'의 세계적인 열풍 속에서 'K뷰티'를 학과명에 사용하는 예도 확인되었다.

4. 결론

전국 2년제 전문대학 및 4년제 종합대학교에 개설된 미용 계열 학과명에 사용된 용어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91년 미용 계열 학과가 대학에서 최초로 개설된 이후 해마다 학과 신설 학교는 증가추세였으며, 1994년 인천, 전북, 제주를 제외한 지역에서 미용과가 개설되었다. 학과명으로 피부미용과가 7개교(41.1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피부관리과 6개교(35.29%), 미용과 4개교(23.53%) 순이었다. 학과명에 사용된 용어로는 '피부'가 13건(43.33%)으로 가장 많았고, '미용'과 '관리'는 각각 11건(36.67%)과 6건(20.0%)을 차지하였다.

둘째, 2005년 미용 계열 학과명에 가장 많이 사용된 용어는 'Beauty'가 50건(21.55%)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美容' 45건(19.39%)과 'Skin' 32건(13.79%) 순이었다. 'Skin'을 사용하는 빈도가 32건으로 비교적 높았던 반면 'Hair'와 'Make up'은 학과명 사용 빈도가 4건(1.72%)에 지나지 않았다.

셋째, 2013년에는 'Beauty'가 67건(28.0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은 '美容'이 49건(20.50%)이었고 'Skin'과 'Design'이 각각 21건(8.79%)과 18건(7.53%)이었다. 2005년과 비교 시 'Skin' 사용 빈도는 소폭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강세가 지속되는 반면 'Hair'와 'Make up' 사용 빈도는 현격히 감소하였다.

넷째, 2020년에는 한두 개의 용어가 아닌 한글과 영문으로 구성하여 다수의 용어를 융합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용 계열 학과명에 가장 많이 사용된 용어로는 'Beauty'가 92건(34.20%)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美容', 'Design', 'Care'가 각각 37건(13.75%), 23건(8.55%), 19건(7.06%)으로 나타났다. 'Skin'은 1994년 13건(43.33%), 2005년 32건(13.79%), 2013년 21건(8.79%), 2020년 7건(2.60%)으로 급격한 감소세를 나타냈다. 그리고 일부 대학에서는 산학협동체계 구축으로 인한 산업체명을 학과명으로 사용하는 예도 확인되었다.

대학 미용 계열의 학과명 용어에 대한 시대별 변천 과정을 조사한 본 연구는 현 미용산업의 전반적인 트랜드 분석이 가능하리라 판단한다. 더불어 학과명 변경을 추진하거나 향후 학과개설 시 유용한 정보로 활용이 가능해지고, 미용산업의 전반적인 트랜드를 분석할 수 있는 자료라고 사료한다.

REFERENCES

[1] J. S. Park. (2020). From the perspective of female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cosmetology Factor analysis on femininit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8(7),* 405-410.
DOI : 10.14400/JDC.2020.18.7.405

[2] J. S. Park. (2020). A Comparative Study of The Movie Farewell My Concubine and Miss Korea Elected in 1989 in The Make up Image. *Journal of the Korean Industrial Management Society, 18(3),* 27-34.
DOI : 10.22678/JIC.2020.18.3.027

[3] S. Y. Lee. (2014). Bibliometric Analysis on The Research Trends in field of Hair Beauty, Master of Thesis. Seoul Venture University

[4] H. K. Kim & M. H. Park. (2014). Effects of Psychosocial Consciousness on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of males workers in 20s and 30s Applied. *Journal of Digital Design Studies, 14(4),* 319-327

[5] H. K. Kim. (2012). A Study on Characteristics of Male's Make-up. *Journal of The Digital Convergence, 10(11),* 635-640
http://dx.doi.org/10.14400/JDPM.2012.10.11.635

[6] J. S. Park. (2020). A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the Components of Modern Girl Hair Style and Social Feminine Performance. *Journal of the Korean Convergence Society, 11(7),* 345-350.
DOI : 10.15207/JKCS.2020.11.7.345

[7] J. S. Park. (2020). A study on the Morphological Changes of Hair after Treatment with Neutral Oxidative Dyeing Agent. *Journal of the Korean Convergence Society, 11(7),* 289-295.
DOI : 10.15207/JKCS.2020.11.7.289

[8] J. S. Park. (2020). Analysis of epidemiological change of hair colored Acer palmatum Leaves extract as hair treatment produc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8(8),* 479-484.
https://doi.org/10.14400/JDC.2020.18.8.479

[9] H. J. Kwon & J. S. Park. (2016). The influences of Nutritional Convergent supplement on damaged nails treated by cosmetic procedur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14(3),* 437-443.

[10] J. S. Park. (2020). A convergence study on the properties of hair coated with Ginkgo biloba extract. *Journal of the Korean Convergence Society, 11(8),* 223-228.

https://doi.org/10.15207/JKCS.2020.11.8.223

[11] M. H. Yang. (2013).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Turnovers of Practitioners Engaged in the Beauty Industry. Master of Thesis. Department of Health Graduate School of Health, Daegu Haany University.

[12] https://namu.wiki

[13] https://academyinfo.go.kr

[14] http://www.kcue.or.kr

[15] www.kcce.or.kr

[16] https://www.academyinfo.go.kr

[17] G. Y. Koo. & M. J. Jang. (1996). A study on the revision of the department name and curriculum in the department of beauty department of junior colleg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Beauty, 2(1), 163-186. KDC 593.05

[18] D. H. Kwon. (2011). A Study of Satisfaction of Students from Beauty Art-related Departments on Educational Assessments. Master of thesis, Ko-sin University.

[19] S. O. Kim. (2009). Study on the curriculum and the educational improvement of majors of cosmetic colleges. Master of thesis, Han-nam University.

[20] J. S. Lee. (2013). Curriculum Analysisby subdividing Majors in Cosmetic Colleges - According to the names of Majors. Master of thesis, Nna-bu University.

박 장 순(Jang-Soon Park) [정회원]

· 2013년 2월 : 광주여자대학교 미용과학과(미용학 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송원대학교 뷰티예술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미용 통계, 미용경영, 헤어미용
· E-Mail : anima2929@hanmail.net